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임 인 경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학 합창 동아리 활동이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2021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이 예 나

대학 합창 동아리 활동이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임 인 경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이 예 나

인 준 서

이예나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0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개요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 합창 동아리 활동을 하는 대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의 수준 및 차이가 어떠한지 알아보고,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성을 분석하여 대학 합창 동아리가 대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 중 합창 동아리 활동을 하는 7개 대학의 105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T-test와 일원변량분석, Scheffe검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의 수준은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도출요청(3.63)과 회복탄력성의 감사하기(4.28)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성별에 따른 회복탄력성에서 여자(3.90)가 남자(3.70)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22$, $p<.05$)를 보였다.

셋째, 전공에 따른 회복탄력성에서는 하위요인 감사하기에서 인문과학(4.88)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회과학(4.18)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감사하기와 감정통제력이 유의한 차이($p=0.004$, 0.030 , $p<.01$)를 보였다.

넷째, 학년에 따른 사회적 자기효능감에서는 하위요인 관계형성에서 4학년(3.72)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휴학(3.27)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관계형성이 유의한 차이($p=0.014$, $p<.05$)를 보였다.

다섯째,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의 상관관계는 서로 관련이 있었으며, 그 중 사회적 자기효능감 하위변인 중 권리주장(0.405), 관계형성(0.550), 의견표현(0.450), 도움요청(0.404)이 회복탄력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문제	3
II. 이론적 배경	4
1. 대학 합창 동아리	4
2. 사회적 자기효능감	8
3. 회복탄력성	14
4. 선행연구 고찰	19
III. 연구 방법	24
1. 연구 대상	24
2. 연구 절차	25
3. 연구 도구	26
4. 자료 분석	32
IV. 연구 결과	33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분석 및 수준	33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의 차이	37

3. 연구 대상의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 상관관계 50

V. 결론 및 제언 52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1> 서울 소재 대학교 합창 동아리 현황	7
<표 2> 연구 대상	25
<표 3> 연구 절차	26
<표 4> 설문지 문항 분류표	27
<표 5> 사회적 자기효능감 타당도 검토	28
<표 6> 사회적 자기효능감 신뢰도 검토	29
<표 7> 회복탄력성 타당도 검토	30
<표 8> 회복탄력성 신뢰도 검토	31
<표 9>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빈도분석	34
<표 10> 연구대상의 사회적 자기효능감 수준	35
<표 11> 연구대상의 회복탄력성 수준	36
<표 12> 성별에 따른 사회적 자기효능감 및 회복탄력성 차이	38
<표 13> 전공별 사회적 자기효능감 및 회복탄력성 차이	39
<표 14> 학년별 사회적 자기효능감 및 회복탄력성 차이	43
<표 15> 참여기간별 사회적 자기효능감 및 회복탄력성 차이	46
<표 16> 참여 빈도별 사회적 자기효능감 및 회복탄력성 차이	48
<표 17>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의 상관관계	51

그림 목 차

[그림 1] 자기효능감의 가설적 위 계구조	9
[그림 2]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17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생은 청소년기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이면서 자아정체감이 확립되는 시기이다. 이 때의 대학생들은 새로운 환경의 적응, 확장된 대인관계,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본인이 감당해야 할 역할과 상황에 필연적으로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된다. 이 시기의 학생들은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고, 가치 및 목표설정, 사회적응, 진로결정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며 자율성과 책임감을 요구받는다.¹⁾ 결국 대학생들은 이러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정체성의 혼란과 자존감의 하락 및 스트레스를 겪기 쉽다.

대학은 정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학과공부와 교과 외의 활동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동아리는 교과 외의 활동에 속하는데, 동아리 활동은 공식적으로 시행되는 교육과정과는 다르다. 동아리 활동은 대학생활에서 학과 공부 이외의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동아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다룰 수 없는 정의적, 사회적 측면을 경험하게 하고, 학과공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하게 상호작용하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스트레스 해소 및 자기 표현력을 강화할 수 있다.²⁾ 이러한 활동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대학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음악을 활용하는 활동은 대학생들의 음악성과 창의성을 계발시켜 조

1) 박은혁, 이용택(2013). “대학생의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과 자아탄력성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4(4), p.6.

2) 김지자, 조주연, 김제영, 심성옥(1999). “동아리 활동을 통해 본 교육 대학 문화 연구”, 학생지도연구 서울교육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5, p.133.

화로운 인격을 형성케 한다. 음악은 고대 그리스부터 인간에게 정서적인 안정감과 전인적인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이유로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다. 미국의 음악교육학자 에드윈 고든(Edwin Gordon, 1927-2015)은 음악적 능력을 ‘잠재된 능력’이라고 표현하며 그 능력에는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음악적이라고 주장한다.³⁾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잠재력을 사용하여 인간을 발달시키고 타인과의 관계형성 및 인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음악 활동으로는 단연 합창을 꼽을 수 있다.

합창은 실력이 뛰어난 한두 명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합창단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목소리를 통하여 하나로 소리를 모을 때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되는 것이다.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구성원들은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목소리를 녹여 낼 수 있는 하모니를 형성하는 것이 합창이다. 헝가리의 음악교육자 줄탄 코다이(Zoltan Kodaly, 1882-1967)는 “음악은 모든 사람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목소리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는 합창 활동을 중요시 하였다.⁴⁾ 이처럼 합창은 혼자일 때에는 표현하지 못하는 화음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고, 상호간의 긴밀한 관계를 맺게 하며 더 나아가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한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현실 속에 음악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음악성이 향상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된다. 더 나아가 본인의 전공이 음악이 아니어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 또한 많은 변화와 책임감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대학생들

3) 강순미, 조대현(2009). “고든의 음악학습이론에 근거한 표준보육과정 내 음악활동의 내용분석과 재구성”, 열린유아교육연구, 14(4), p.4.

4) 민경훈 외 11명(2019). 음악교육학총론(제3판), 서울 : 학지사. p.249.

에게 스트레스에서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인간의 고유 능력인 목소리를 활용한 합창 활동을 통하여 대학생들의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문제

본 연구는 서울 소재 대학 합창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의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합창 동아리 활동을 하는 대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의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대학 합창 동아리 활동을 하는 대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의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대학 합창 동아리 활동을 하는 대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대학 합창 동아리

1) 대학 합창 동아리의 특징

대학은 학과공부와 교과 외의 활동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 동아리는 교과 외의 활동에 속한다. 대학생에게 특정한 과제를 부여하여 강제하는 것이 아닌 자발성과 창의성을 길러주는 동아리 활동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스트레스 해소 및 자기 표현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한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들 나름대로의 집단을 형성하고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동하며 폭넓은 대인관계를 경험할 수 있다.⁵⁾

‘동아리’ 또는 ‘씨클’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인 ‘circlus’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고리’라는 뜻으로, 같은 목적 하에 결합된 사람들 또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⁶⁾ 즉, 동아리는 특기, 적성, 취미, 소질 등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대학생들은 여러 형태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학 생활에서 여가활동의 한 형태인 동아리 활동은 창의적인 활동 영역 중 하나이다. 대학생들이 정규과정 이외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전공을 달리하는 학생들과 유대관계를 맺고 자신을 개발해 나가며 삶에 대한 의미와 보람을 찾아 나가려는 욕구를 지니기 때문이다. 동아리 활동은 학과 공부에 지친 대학생들에게 학업 능력 향상은 물론 욕구 충족 및 스트레스 해소, 휴식, 취미 생활 영

5) 김지자, 조주연, 김재영, 심성옥(1999). 앞의 글, pp.133-134.

6) 김지자, 조주연, 김재영, 심성옥(1999). 위의 글, p.132.

위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⁷⁾

대학교 내 동아리 유형은 활동 내용에 따라 스포츠, 문화 및 예술, 종교, 봉사 등 다양한 분야로 나타나는데 음악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으로는 클래식 기타, 오케스트라, 국악, 합창 등이 있다. 음악을 통한 활동은 인간의 창의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자아의 실현과 함께 풍요로운 삶을 제공한다. 또한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주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 생활 속에서 받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스트레스 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⁸⁾ 그 중 사람의 목소리를 통한 합창 활동은 다양한 측면들의 균형을 꾀할 수 있다.

합창은 인간관계 내에서 상호 의사소통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음악적 매개체로써, 오래전 중세 시대부터 종교적 의식을 함양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중세 시대에는 중창이나 합창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의하고, 신과의 만남을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이와 같이 합창은 역사적, 문화적, 민족적인 요소들을 공유하고 고유한 정서를 느낄 수 있게 한다.⁹⁾

합창 동아리 활동은 한 사람의 소리로 완성될 수 없고 여러 소리를 하나의 소리로 만들어내는 활동이다.¹⁰⁾ 목소리를 활용하는 교수법을 강조한 코다이는 시설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쓰일 수 있는 노래를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또한 누구나 즐기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목소리로 음악을 배우게 하는 교수법을 만들어 무반주로 여러 학생들이 함께 노래 부르는 활동을 주장하였다.¹¹⁾

대학 내 합창 활동은 다양한 특징 및 장점을 갖는다. 첫째, 열정을 갖게

7) 김덕진, 양명환(2003).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유형과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간의 관계”, 한국체육교육학회지, 7(4), p.135.

8) 하성일(2011). 음악 동아리 활동을 통한 농어촌 학생들의 자신감 키우기에 관한 반성적 실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47-49.

9) 이영미(2009). “합창교육의 사회학적 연구”, 예술교육연구, 7(2), pp.123-124.

10) 이영미(2009). 위의 글, p.129.

11) 민경훈 외 11명(2019). 앞의 글, p.249.

한다. 치열한 학과 공부와 취업 준비로 스트레스가 축적된 대학생들에게 합창 활동은 나 혼자만의 소리가 아닌 옆 사람의 소리를 들으며 맞추는 작업을 통하여 함께 조화를 이루어내고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열심을 다하게 된다. 둘째, 좋은 만남을 만들어 준다. 4년의 대학생활을 하며 같은 전공 위주의 만남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합창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이들과 만날 수 있다. 좁은 의미로는 합창 단원 간의, 혹은 지휘자와 합창 단원들 간의 만남이 있다. 넓은 의미로는 합창단과 청중간의 만남이 있다.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해 나가며 더욱 성장한 대학 생활이 가능하게 된다. 셋째, 생활 속에서 조화를 알게 한다. 자신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목소리도 들어야 하는 합창 활동은 다른 어떤 활동보다 생활 속의 조화미를 느끼게 한다. 경쟁과 실패 속에 긴장된 대학 생활에 활기를 주고 음색을 통일하며 공동체의 존재를 느끼게 한다.¹²⁾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 노래를 한다는 것은 참여한 모두에게 만족감과 기쁨을 갖게 하며 음악 교육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합창 동아리는 공동체적 역량을 실현할 수 있는 활동으로써 대학생들에게 유대감을 형성하여 서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음악을 경험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자신의 책임을 다하면서 사회적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2) 대학 합창 동아리 현황

현재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은 사이버대학을 포함하여 63개의 대학이 있다. 동아리 유형은 활동 내용에 따라 스포츠, 문화 및 예술, 종교, 봉사 등 다양한 분야로 나타나는데, 그 중 음악 분야 동아리에는 클래식 기타, 오케스트라, 국악, 합창 등이 있다. 합창 동아리가 있는 대학은 23개로 파악되었

12) 김준경(2015). “한국의 문화: 대학 캠퍼스 구성원의 합창음악 활동을 통한 인성적 교류 경험”, 한국사상문화학회, 76, pp.356-357.

는데, 2020년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사실상 동아리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그럼에도 몇 개의 대학에서는 ‘버추얼 콰이어’라는 이름으로 연습을 하였는데, 버추얼 콰이어란 직접 만나지 않고 컴퓨터를 통하여 모임과 연습을 진행하는 형태를 말한다. 합창 동아리가 있는 학교명과 동아리명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서울 소재 대학교 합창 동아리 현황

학교 명	동아리 명
가톨릭대학교(성의교정)	합창반
감리교신학대학교	에이레네(중창), 합창단
건국대학교	건국합창단
경희대학교	GLEE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합창단
국민대학교	CHORUS
동국대학교	오아시스
서강대학교	서강합창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Uno Per Tutti
서울교육대학교	벨칸토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합창단
서울시립대학교	새벽을 알리는 소리
성균관대학교	성균 합창단
성신여자대학교	성신 레이디즈 싱어즈
숙명여자대학교	숙명 합창단
연세대학교	Glee Club, 아브넵프
이화여자대학교	이화합창단
중앙대학교	청룡합창단
충신대학교	남성합창단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방송대 합창단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대합창단
한양대학교	남성합창단, 하니브로, GLEE
홍익대학교	합창반(HIUC)

2. 사회적 자기효능감

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이론은 반두라(Albert Bandura, 1925-)에 의해 처음 제시된 개념이다. 자기효능감이란 어떠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다.¹³⁾ 반두라는 자기효능감이 미래의 상황을 다루는데 필요한 행동 과정들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고 말한다. 이 신념은 인간이 생각하고, 느끼며, 자신을 동기화하여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¹⁴⁾

자기효능감은 목표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 과정의 조직 능력과 실행 능력에 대한 자신의 신념이기도 하고, 많은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인지적이고 정서적으로 기술을 조직하고 효과적으로 배합하는 능력이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실제 능력은 큰 차이가 없더라도 효능감이 낮은 사람 보다 일을 더욱 의미 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효능감은 개인의 능력 이상으로 수행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⁵⁾

개인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결정인자인 자기효능감은 결과 달성을 위해 장기간 동안 많은 노력과 변화된 행위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한다.¹⁶⁾ 장근주와 심소연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신감이 높아짐을 발견하였고,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곧 목표를

13) 알베르트 반두라(2004).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의 자기효능감, 서울 : 학지사. pp.2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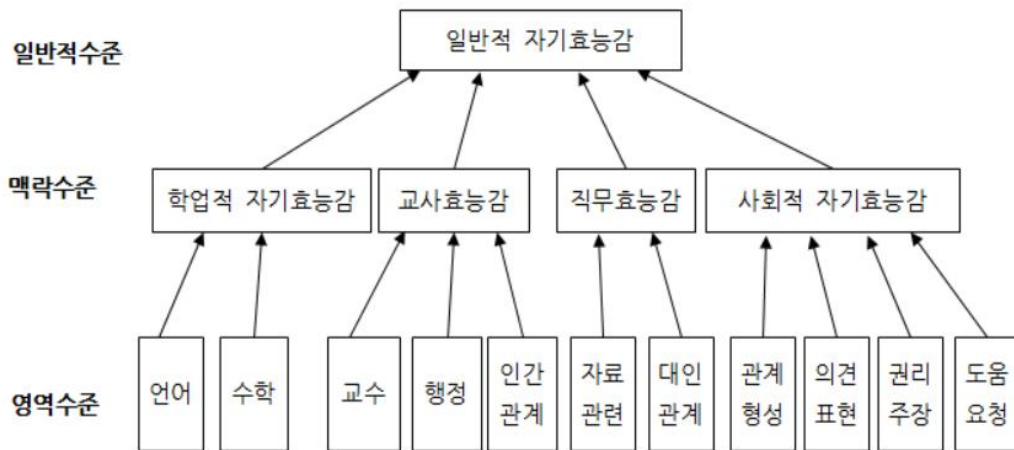
14) 알베르트 반두라(2004). 위의 글. pp.21-22.

15) 박현미(2013).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우울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9.

16) 김주이(2017). 폐쇄성 무호흡 환자를 위한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 Bandura의 자기효능이론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4.

높게 세우고 스스로를 잘 점검하며 긍정적인 자기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¹⁷⁾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인간의 행동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변인 중 하나로 꼽힌다.

자기효능감은 일반 자기효능감 척도처럼 전체로서 정의되기도 하지만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반적 수준에서 맥락 수준, 그리고 영역 수준까지 위계적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그림 1] 자기효능감의 가설적 위계구조¹⁸⁾

맥락 수준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 수행과 관련된 구체적 상황에서 학습자가 자신감으로 학업과제 수행에 내리는 판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보다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

17) 장근주, 심소연(2013). “대학 음악 전공자들의 자기효능감과 연주자신감의 상관관계”, 음악교육연구, 42(4), p.117.

18) 강한아, 김아영(2013). “대학생용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7(2), p.266.

며, 끈기 있게 주어진 학업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 목표와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¹⁹⁾

교사효능감은 학생들의 학습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교사 자신의 신념과 지각을 의미한다. 이는 ‘교사 변인이 학생들의 성취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교사의 지각’을 의미하기도 한다. 교사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들을 수행하는 학교에서 경험하고 지각하는 스스로에 대한 능력신념의 한 차원으로 볼 수 있다. 교사효능감을 구성하는 요인으로는 교수 능력 및 전략에 대한 효능감, 학급 경영 및 관리, 자신을 조절할 수 있다는 믿음 및 과제 난이도에 대한 선호 등이 있다. 교사효능감은 학습자의 성취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인 중 하나로 다각도에서의 분석이 요구된다.²⁰⁾

직무효능감은 개인이 인식하는 스스로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이다. 개인이 과업이나 직무를 수행할 때 본인의 능력에 대한 지각으로 직무의 동기요인으로 작용한다. 직무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직무수행에 대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²¹⁾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개인에게 주어진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대학생의 사회적 관계형성과 타인과의 관계함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자신의 진로 방향을 정하고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²²⁾

19) 이정애(2012).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과적응 간의 관계에서 결과기대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3(5), p.2331.

20) 방상욱, 임은미(2020). “교사의 문화신념과 교사효능감 군집에 따른 심리적소진의 차이”, 교사교육연구, 59(2), p.262.

21) 지성호, 강영순(2015). “지속경력학습과 조직경력성장의 관계에서 경력적응력 및 직무효능감의 매개효과”, 인적자원관리연구, 22(5), p.27.

22) 강한아, 김아영(2013). 앞의 글, p.264.

2) 사회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반두라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사회적 맥락에서 해석한 것으로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소 중 하나이다. 자기효능감이 개인의 목표 수행에 필요한 행동을 실행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라면, 사회적 자기효능감이란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 속에서 주어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행동을 효과적으로 조직, 수행하는 능력에 관한 개인의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²³⁾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강한아, 김아영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특정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동을 효과적으로 조직, 실행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²⁴⁾ 권은미, 신민섭, 김은정은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한 기술을 사용해 바람직한 인상을 전달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고 보았다.²⁵⁾ 팬과 맥(Fan, C. & Mak, A. S., 1998)은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학업이나 일상생활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서 접하게 되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목표로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개인의 기대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코놀리(Connolly, J, 1989)는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사회적 관계를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과제의 숙달정도에 대한 개인의 기대라고 하였다. 스미스와 베헤츠(Smith, H. M. & Betz N. E., 2000)는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과제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자신감이라 정의하였다.²⁶⁾

이러한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대학생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타인과 상

23) 강한아, 김아영(2013). 앞의 글, pp.265-266.

24) 강한아, 김아영(2013). 위의 글, p.266.

25) 권은미, 신민섭, 김은정(2009).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공포증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일반, 28(3), p.630.

26) 강한아, 김아영(2013). 위의 글, p.266.

호작용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들의 학업 수행 및 학교 생활 적응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협력하는 태도를 기본으로 하는 팀 프로젝트와 같은 형태의 과제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로방향을 설정하고 준비해야하는 대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²⁷⁾

또한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방어행동과는 정적 상관을, 방관행동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낸다. 방어행동은 누군가를 괴롭히는 상황을 목격한 주변인이 피해자를 돕는 행동인데, 이때 주변인은 피해자를 직접 돕거나 제 3자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다. 방관행동은 방어행동과 반대로 같은 괴롭힘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어떠한 행동이나 반응도 하지 않는 것이다.²⁸⁾ 사회적인 상황에서 의사표현을 하며 갈등상황을 대처하려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은 방어 및 방관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가정한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다른 이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낮으면 상황을 목격하더라도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다른 이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미루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3)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대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할 수 있는 간편 척도를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강한아·김아영은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으로 관계형성, 의견표현, 권리주장, 도움요청을 구분하였다.²⁹⁾

첫째, ‘관계형성’은 사람들 사이에 지속적이고 역동적으로 진행되는 복합적 상호작용으로, 인간관계를 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요소이다. 인간은

27) 강한아, 김아영(2013). 앞의 글, p.266.

28) 김명원, 공윤정(2020). “초등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방어 및 방관행동의 관계에서 교사감독의 조절효과”, 초등상담연구, 19(2), p.167.

29) 강한아, 김아영(2013). 위의 글, p.269.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무수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여러 관계를 통해 효과적이고 만족스러운 관계가 형성되고 사회적 태도, 기술, 리더십 등을 학습할 수 있게 된다.³⁰⁾

둘째, ‘의견표현’은 타인이나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전달함으로써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신 내면의 생각이나 감정 등을 직접적이고 분명한 표현으로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으며, 원만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³¹⁾

셋째, ‘권리주장’은 개인의 권리와 타인의 요구가 상충할 때 자신의 권리를 지혜롭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올바르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주장은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중요한 측면이다.³²⁾

넷째, ‘도움요청’은 개인이 곤란한 상황이나 문제 상황,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도움요청은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 상황에 대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대처 방법과 능력에 대해, 그리고 타인의 도움에 대해 생각한 후 대상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절차가 있다.³³⁾

30) 이영구(2012).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 리더십 생활 기술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스카우트 단체 활동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7-18.

31) 김경호(2008). “의견표현’과 ‘사실적시’ 이분법에 따른 대법원의 표현의 자유 보호 범리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8(1), p.44.

32) 조은미, 박해임, 천성문(2018). “대학 신입생의 전공 선택 동기와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42(1), p.179.

33) 이희주(2008). “교사의 목표 지향과 자기효능감, 도움요청 행동과의 관계”, 한국아동교육학회, 17(1), p.216.

3. 회복탄력성

1) 회복탄력성의 개념

회복탄력성을 의미하는 'resilience'는 라틴어 *resiliens*에서 유래된 용어로, 본래 물체의 신축적 혹은 물질의 유연성을 일컫는 말로 '늘어나 있거나 압축돼 있던 것이 원래의 상태로 복원 된다'는 의미를 가진다.³⁴⁾ 회복탄력성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정의되었다.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은 어려움에서 적응적 상태로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의 '회복'과 성장을 나타내는 개념인 '탄력성'을 합쳐 '회복탄력성'을 정의하였다.³⁵⁾ 홍은숙은 늘어나 있다가 압축된 상태에서 다시 튕겨오거나 되돌아오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말한다.³⁶⁾ 김주환은 인생에서 마주하는 역경을 얼마든지 이겨낼 잠재적인 힘이 회복탄력성이라고 말한다.³⁷⁾

탄력성은 개인적인 위협이나 장애를 극복하는 '보호 요인(protective risk)'으로 작용한다. 이에 관한 연구를 통해 개인의 감정 차원을 조절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경직되지 않으며 유연하게 반응하는 능력으로써 개인적 탄력성의 개념을 확립하였다. 이러한 개인적 탄력성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의연하게 반응하는 능력을 지니게 된다.³⁸⁾ 이러한 개인적 탄력성은 자아 탄력성, 곧 회복 탄력성으로 연결된다.

34) 이소영(2018). 위기 청소년에게 회복탄력성이 갖는 의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19.

35)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 "회복탄력성 검사 지수의 개발 및 타당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4), p.108.

36) 홍은숙(2006). "탄력성의 개념적 이해와 교육적 방안", 특수교육학연구, 41(2), p.47.

37) 김주환(2011). 회복탄력성, 위즈덤하우스, p.18.

38) 최서규(2015). 노인의 회복탄력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22-23.

회복탄력성은 일상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스트레스와 고민, 그리고 갈등을 자연스럽게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힘이다. 몸의 힘이 몸의 근육에서 나오듯이 마음의 힘은 마음의 근육인 회복 탄력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음의 면역력을 높임으로써 일상의 어려움에 기인한 스트레스,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인 질병을 막아준다. 이러한 회복탄력성은 모형을 갖추어 심리적 상태에 따라 변화한다. 먼저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면 스트레스로부터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회복탄력성이 작용된다. 그렇지만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심해서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극복하고 회복하기 위해 회복탄력성이 적용된다. 이후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되면 다시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회복탄력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회복탄력성은 개인이 직면한 스트레스나 역경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자원임과 동시에 많은 스트레스나 역경을 예방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³⁹⁾

이러한 회복탄력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되거나 소멸될 수 있는 능력이다. 김주환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경험 자아’와 ‘기억 자아’가 존재한다고 한다. ‘경험 자아’는 내가 현재 경험하는 것을 느끼는 자아로써 지금 벌어지는 기쁜 일이나 쾌락을 즐기고 고통과 피로움을 피하려고 한다. 한편 ‘기억 자아’는 지나간 경험을 회상하고 평가하는 자아로써 스토리텔링의 형태로 회상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미래에 대한 예측과 그에 따른 의사 결정은 전적으로 기억 자아에 의존하게 된다. 많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며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기억 자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회복 탄력성이 이 ‘기억 자아’의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⁴⁰⁾

39) 김경훈(2014). 도시공원 여가 만족이 직장인의 직무 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35-36.

40) 김주환(2011). 앞의 글. pp.142-145.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먼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닥쳤을 때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수용한다. 과거에 머물거나 미래에 대한 근거 없는 환상만을 추구한다면 회복할 수 없고 주변 상황을 살피고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즉 회복탄력성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⁴¹⁾ 두 번째로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는 자세를 가진다.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각 사람마다 다르게 설정되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를 탐구하는 것이다. 안정과 균형만 추구하지 않고 도전적이고 당황스러운 긴장을 증가시켜 약간의 긴장 속에서 깨어있는 사람을 말한다.⁴²⁾ 세 번째로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독창적이고 유연한 상황대처 능력을 가진다. 위기의 상황에 닥쳤을 때 상황을 한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재료나 수단으로 상황을 버티는 것을 말한다.⁴³⁾

2) 회복탄력성의 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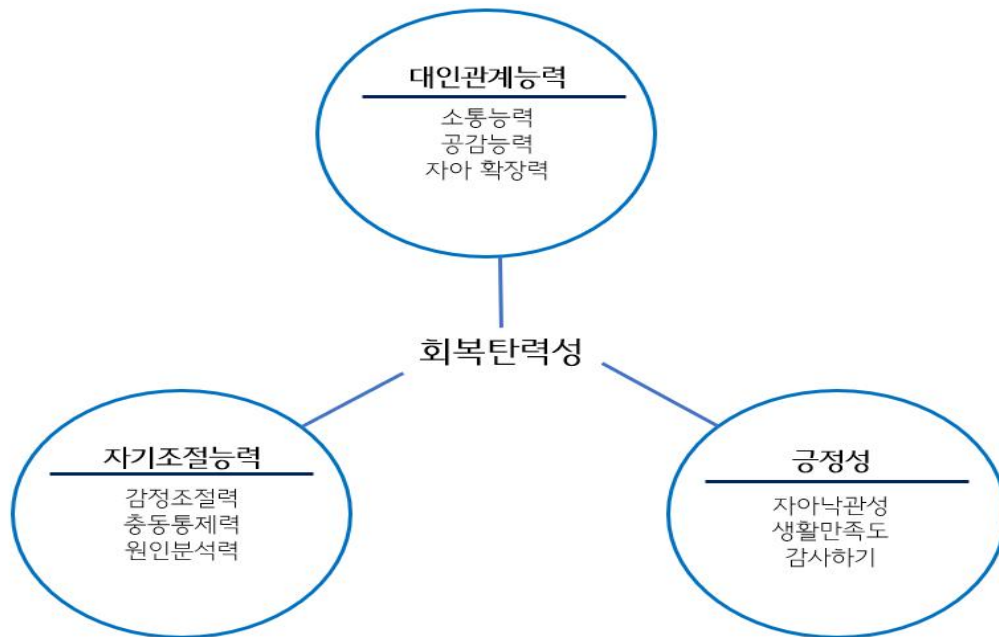
회복탄력성의 유형은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 원인분석력, 소통능력, 공감능력, 자아확장력, 감사하기, 생활만족도, 낙관성 9개로 나뉘지고, 이 유형들은 다시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3가지 요소로 묶이게 된다.⁴⁴⁾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을 도형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41) 정우향(2019). 회복탄력성·소통·신자유주의 소통의 시선, 도서출판 대장간, pp.33-34.

42) 정우향(2019). 위의 글, pp.38-39.

43) 정우향(2019). 위의 글, p.47.

44)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 앞의 글, p.111.



[그림 2]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⁴⁵⁾

‘자기조절능력’이란 스스로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으로,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잘 드러난다.⁴⁶⁾ 자기조절능력은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 원인분석력으로 구성된다. ‘감정통제력’은 부정적 감정을 통제하여 긍정적인 감정과 건강한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킨다.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긍정적인 정서가 필수적인데, 긍정적 정서는 확장된 자아 개념을 유발시켜 다른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며 나 자신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충동통제력’은 충동적인 기분에 휩쓸리는 반응을 억제하는 능력이다.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조절이 가능한 능력으로, 단순한 참을성과는 다르게 자율성을 바탕으로 고통을 즐기거나 즐거움으로 승화

45) 정우향(2019). 위의 글, p.49.

46) 김주환(2011). 앞의 글, pp.93-192.

시키는 마음의 습관이다. ‘원인분석력’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이고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여 대처 방안을 찾아내는 능력이다.⁴⁷⁾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일들 자체에는 본래 어떠한 의미도 담겨져 있지 않다. 단지 그 일들을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달려있는 것이다. 김주환(2011)은 이를 스토리텔링이라고 설명하는데, 자신에게 닥친 사건들을 긍정적이면서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다.

‘대인관계능력’은 가드너(Howard Gardner, 1943-)가 말하는 대인지능이나 다니엘 골먼(Daniel Goleman, 1946-)이 말하는 사교적 지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소통능력, 공감능력, 자아확장력으로 구성된다. ‘소통능력’은 인간관계와 설득의 능력이다. 감정이입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 감정지능 그리고 사교적 지능까지 모두 포함된다.⁴⁸⁾ 이는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험을 함께 하고 공유한다는 것이다. ‘공감능력’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심리적 상태를 잘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다.⁴⁹⁾ 상대방의 몸짓이나 목소리 톤, 몸짓, 자세 등을 통하여 그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알아채는 것이다. 학자들은 타인의 마음과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마음 이론’이라고 부른다. ‘자아확장력’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이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긍정성’은 창의성의 증가와 업무 수행 능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폭 넓은 사유와 마음을 갖게 해준다. 긍정성은 낙관성, 생활만족도, 감사하기로 구성된다. ‘낙관성’은 자신이 가진 장점과 강점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이다. ‘생활만족도’는 삶에 대한 만족도를 말하는데 이는 행복의 기본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감사하기’는 말 그대로 삶과 주변 사람들에 대해 감사하는

47) 김주환(2011). 앞의 글, pp.93-192.

48) 김주환(2011). 위의 글, pp.93-192.

49) 김주환(2011). 위의 글, pp.93-192.

태도를 말한다.

4. 선행연구 고찰

이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대학 동아리, 합창 활동, 사회적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등을 논의한 연구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인영⁵⁰⁾은 “음악 동아리 활동이 중학생의 음악 흥미도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음악 흥미도와 정서지능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음악 동아리 활동이 미치는 교육적 가치와 의의를 알아보고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음악 동아리 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중학생의 음악 흥미도와 정서지능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검증하기 위해 서울 소재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에 재학 중인 중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일반적 특성, 음악 흥미도, 정서 지능에 대한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연구 문제에 따라 빈도분석,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t검정, 일원변량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196명에게 설문을 하였으며 그 중 음악 동아리에 참여하는 학생은 94명,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102명이었다. 분석한 결과로는 음악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중학생의 음악 흥미도와 하위요인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보다 높았으며, 정서 지능 및 하위요인도 높았다. 또한 음악 흥미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는 음악 흥미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정서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개방형 2문항을 통해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질적 분석하여 긍정적인 응답과

50) 이인영(2015). 음악 동아리 활동이 중학생의 음악 흥미도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단점 및 보완해야 할 점들을 응답으로 받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음악 동아리 활동이 중학생들의 음악성 발달과 음악 흥미도 및 정서지능의 향상을 가능하게 하며 음악 동아리 활동이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정현태⁵¹⁾는 “대학 동아리 활동에 따른 여가 만족이 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동아리 활동 성향에 따른 여가 만족이 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대학 동아리 활동에서 학생이 느끼는 여가 만족 수준을 통하여 동아리 활동 특성에 따른 기대 만족 수준을 조사해 보았고, 이를 통해 여가 만족을 넘어 생활 전반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동아리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실정과 성향을 파악하여 학생들의 여가에 대한 가치와 수준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대학 재학생 500명을 선정하여 모집단으로 설정하였고, 설문지를 연구 도구로 선정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 SPSS(ver. 12.0)를 사용하였다. 성별, 연령, 거주형태, 전공, 동아리 성격에 따른 활동 성향과 여가 만족 및 생활 만족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하위요인인 신체적, 심리적, 생리적, 정서적 요인 등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동아리 활동성향, 동아리 활동 유무, 동아리 활동에 따른 여가 만족 및 생활 만족의 차이 및 영향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조성희⁵²⁾는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과 사회적지지, 학업적응도 및 대학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연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아리 활동 경험에 따라 사회적지지와 학업적응도, 그리고 대학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동아리 활동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51) 정현태(2008). 대학 동아리 활동에 따른 여가만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52) 조성희(2006).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과 사회적지지, 학업적응도 및 대학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연구를 위해 서울 지역의 4년제 대학교 학부 학생 33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고, 동아리 활동에 관한 질문지와 사회적지지, 학업적응도, 대학생활 만족도 척도를 연구 도구로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12.0K를 사용하여 분산 분석과 다변량 분석, 다중회귀 분석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동아리 활동 경험에 따라 대학생들의 사회적지지, 학업적응도, 대학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연구문제로 삼았다. 연구 결과로 동아리 활동 여부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학업적응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동아리 활동을 하는가가 대학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그들이 속한 동아리 종류와 역할이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만족도가 활동을 하지 않는 대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동아리의 가입 여부는 대학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며 소속되어 있는 동아리가 있을수록 대학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연주⁵³⁾는 “대학 오케스트라 활동이 대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대학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이 대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수준을 알아보고, 오케스트라 동아리가 대학생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연주는 서울, 경기 소재 4년제 대학교 중 현재 합창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 7개의 대학 오케스트라 동아리를 제외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도구로는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사회적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은 신뢰도 검사를 검토하여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문항들을 선택하고 신뢰도가 부족한 문항은 제거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총 174명의 자

53) 이연주(2019). 대학 오케스트라 활동이 대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료를 가지고 SPSS ver. 24.0 통합패키지를 사용하여 전산 통계처리 하였다. 또한 연구 문제 규명을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pearson 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로는 대학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을 하는 대학생은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관계형성이 가장 높고, 권리주장이 가장 낮게 나왔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대인관계능력의 하위요인들 중에는 신뢰감 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호관리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보배⁵⁴⁾는 “대학생의 회복탄력성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실패공포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학생들을 이해하고 대학생의 회복탄력성과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확인하여 다양한 효과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3개 대학, 경기도 소재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1,2학년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34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3단계 중다회귀 분석과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대학생의 회복탄력성과 실패공포, 대인관계문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은 대인관계문제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사회성은 모든 대인관계문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셋째, 대학생의 회복탄력성과 대인관계문제 사이의 관계에서 실패공포의 부분 매개효과에 대해 확인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이 여가 만족 및 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동아리 활동성향, 활동 유무에 따라 여가 만족 및 생활 만족의 차이와 영향에

54) 이보배(2017). 대학생의 회복탄력성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실패공포의 매개효과, 경희대학교 대학원.

대해서 유의한 차이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동아리 활동 여부와 동아리 종류가 사회적지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동아리 활동을 하는 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가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는 대학생보다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동아리의 특색이나 성격을 주목하여 연구한 것이 아닌 전반적인 동아리 활동에 대해 연구하였다.

둘째, 대학 오케스트라 활동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대학 오케스트라 활동이 대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관계형성과 대인관계능력의 하위요인 중 신뢰감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대학 내 합창 활동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학생의 합창 동아리 활동에 대한 연구들은 미비한 실정이다.

셋째, 대학생의 회복탄력성 및 대인관계문제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은 대인관계문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하위요인 중 사회성은 모든 대인관계문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학 동아리 중 합창 활동을 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고, 대학생용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 척도를 바탕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통하여 대학 합창 동아리 활동이 대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현재 사이버 대학을 포함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63개를 대상으로 각 학교의 홈페이지에서 합창 동아리를 가진 23개 대학교를 조사하였다. 23개 대학교 중 무작위로 11곳의 동아리 단장 혹은 팀장에게 연락하여 설문 참여에 응해준 7개의 대학 합창 동아리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7개 대학은 모두 교내 행사에 활발히 참여하고, 정기 연주 및 교내 다양한 행사와 기관 봉사 등을 꾸준히 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창단 대면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상황이 엄중해지며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 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 맞게 비대면으로 합창 연습을 하며 활동을 지속하는 동아리도 있었다. 설문에 참여한 인원은 총 118명이지만 본 연구는 대학 동아리를 주제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대학원생의 응답 12부와 불성실하게 대답한 응답 1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05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연구 대상의 일반 사항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대상

구분	설문 인원 수	분석에 사용된 수
A 대학	19	19
B 대학	8	8
C 대학	12	12
D 대학	21	21
E 대학	5	5
F 대학	27	27
G 대학	13	13
합계	105	105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약 1년 5개월간 진행되었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준비, 설계, 실행, 분석, 정리의 다섯 절차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절차는 <표 3>과 같다.

<표 3> 연구 절차

연구 단계	연구 내용	연구 기간
준비	-연구 주제 선정 -선행연구 고찰 -문헌 검토 및 자료수집	2019년 9월-12월
설계	-연구 목적 및 문제 설정 -연구 계획 수립	2020년 3월-5월
실행	-연구 대상 선정 -설문지 구성 및 제작 -설문지 배부	2020년 6월-9월
분석	-설문지 회수 -설문지 타당도, 신뢰도 검증 -자료 통계 및 분석 -결과 도출	2020년 10월-11월
정리	-결과 해석 및 정리 -수정 및 보완 -논문 최종 정리	2020년 11월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연구 도구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의 구성 내용은 <표 4>와 같다. 설문지의 전체 문항 수는 42문항이며, 이는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7문항,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한 8문항, 회복탄력성을 알아보기 위한 2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성별, 전공, 학교, 학년, 참여 기간, 참여 빈도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 번째로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관계형성 및 유지 2문항, 의견표현 2문항, 권리주장 2문항, 도움요청 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지막으로 회복탄력성은 원인분석력 3문항, 감정통제력 3문항, 충동통제력 3문항, 감사하기 3문항, 생활 만족도 3문항, 낙관성 3문항, 관계성 3문항, 커

의사소통 능력 3문항, 공감능력 3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설문지 문항 분류표

구분	구성내용	문항 수	계
일반적 특성	성별, 전공, 학교, 학년, 참여기간, 참여빈도	7	7
사회적 자기효능감	관계형성 및 유지	2	8
	의견표현	2	
	권리주장	2	
	도움요청	2	
회복탄력성	원인분석력	3	27
	감정통제력	3	
	충동통제력	3	
	감사하기	3	
	생활만족도	3	
	낙관성	3	
	관계성	3	
	커뮤니케이션능력	3	
	공감능력	3	
	총 문항 수		

1)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

본 연구는 대학 합창 동아리에 참여하는 대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강한아, 김아영(2013)이 개발한 대학생용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⁵⁵⁾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소는 관계형성, 의견표현, 권리주장, 도움요청으로 되어있고, 문항은 각 영역별 2문항씩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자기효능감 원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의 6점 척도로 되어있으나 회복탄력성 척도와 통일성을 위

55) 강한아, 김아영(2013). 앞의 글, pp.263-283.

해 이 연구에서는 리커트(Likert)식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외생변수에 관한 요인분석으로는 주성분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법을 이용하였고, 요인회전에 있어서는 요인들 간의 상호독립성 검사에 유용한 직교회전방법(varimax)을 이용하였다. 이 방법은 요인추출 시 요인의 수와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공정성 요인분석결과의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KMO(Kaiser-Meyer-Olkin)검증 및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KMO=.926, Bartlett 구형성 검증은 $\chi^2=295.428(df=28, p=.000)$ 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KMO값이 .5이상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의 경우 p값이 유의수준 .1 이하라면, 요인분석이 가능한 정도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요인분석에서 관련요인들의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은 .5이상을 기준으로 세웠고, 고유값(eigen-value)이 1.0 이상인 요인 4개가 추출되었으며 조직공정성 요인을 설명하는 총 분산 설명력은 80.7%로 나타나 측정 항목들의 타당도가 검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자기효능감 문항의 타당도는 <표 5>와 같다.

<표 5> 사회적 자기효능감 타당도 검토

문항	성분				합계	% 분산	% 누적
	1	2	3	4			
1	.072	.870	.243	.128	1.781	22.261	44.925
2	.141	.815	.338	.027			
3	.190	.279	.867	.087	1.768	22.095	67.020
4	.108	.300	.871	.028			
5	.787	.086	.181	-.110	1.813	22.664	22.664
6	.857	.024	.028	.136			
7	.618	.418	.215	.535	1.099	13.743	80.763
8	.070	.102	.060	.965			

KMO=.777 근사카이제곱=295.428, df=28

사회적 자기효능감 요인에 대한 안정성,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계수를 신뢰도 계수로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0.6 이상을 기준으로 신뢰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그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한다. 크론바하 알파계수를 사용하여 내적 일관성에 의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0.6 이상의 수치를 보여 신뢰 수준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자기효능감 문항의 신뢰도는 <표 6>과 같다.

<표 6>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신뢰도 검토

구분	평균	표준편차	Cronbach의 알파
권리주장	3.26	.82	.617
관계형성	3.31	.96	.786
의견표현	3.48	.90	.847
도움요청	3.63	.77	.783
사회적 자기효능감 전체	3.42	.64	.798

2) 회복 탄력성 척도

본 연구는 대학 합창 동아리에 참여하는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이 개발한 회복탄력성 검사 척도를 사용하였다.⁵⁶⁾ 본 척도의 문항들은 3가지 형태의 9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9가지 유형은 원인분석력,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 감사하기, 생활만족도, 낙관성, 관계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공감능력이며 각 유형에 대해 3문항씩 총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들은 Likert 5점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회복탄력성 요인분석결과 KMO=.719, Bartlett 구형성 검증에서 $\chi^2=1314.711$ (df=351, p=.000)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KMO값이 .5 이상이고 Bartlett

56)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 앞의 글, pp.105-131.

의 구형성 검증의 경우 p값이 유의수준 .1 이하면, 요인분석이 가능한 관계가 성립한다. 요인분석에서 관련요인들의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은 .5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고, 그 이하인 3,5,8번 문항은 삭제하였다. 고유값(eigen-value)이 1.0 이상인 요인 9개가 추출되었으며 총 분산 설명력은 73.3%로 나타나 측정항목들의 타당도가 검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회복탄력성 문항의 타당도는 <표 8>과 같다.

<표 8> 회복탄력성 타당도 검토

문항	성분									합계	% 분산	% 누적
	생활만족도	공감능력	원인분석력	감사하기	관계성	커뮤니케이션능력	낙관성	충동통제력	감정통제력			
13	.767	-.004	.179	.211	.033	.106	-.004	-.012	.228	2.716	10.061	10.061
15	.757	.131	.060	.067	.134	.102	.161	.015	-.148			
14	.717	.099	.258	.141	.140	.168	.155	.101	.072			
26	.079	.835	.059	.140	-.029	.207	.076	.179	.027	2.599	9.624	19.686
27	.048	.818	.199	.022	-.022	.055	-.041	.235	-.080			
25	.087	.747	.107	-.005	.119	.211	.209	-.147	.155			
1	.153	.141	.777	.039	.087	-.182	-.016	-.100	.126	2.595	9.612	29.298
2	.214	.290	.736	.134	-.017	-.090	.025	.146	.100			
10	.018	.093	.070	.840	.238	-.026	.047	.040	-.079			
12	.126	-.045	.036	.838	.171	-.007	.127	-.027	-.119	2.519	9.330	38.628
11	.337	.176	-.044	.716	-.027	.139	.025	-.138	.123			
21	.315	.085	-.090	.102	.860	-.057	.075	-.051	.047			
20	.147	-.042	.044	.194	.855	.149	-.017	.045	.076	2.361	8.744	47.371
19	-.182	-.007	.274	.323	.614	.270	.130	.082	-.068			
22	.245	.176	-.215	-.069	.150	.764	-.078	.054	-.205			
23	.103	.350	.055	.080	.206	.708	.211	-.077	.061	1.997	7.395	54.767
24	.149	.439	.011	.112	-.150	.518	-.259	.242	.199			
16	.111	.094	.000	.292	-.043	.089	.785	-.024	.186			
17	.211	.168	.137	.026	.125	-.189	.607	.302	-.317	1.910	7.075	61.842
18	.492	.043	.208	-.005	.281	.027	.542	.212	.064			
7	.005	.191	-.088	-.042	.027	.056	.137	.771	.154			
9	.294	.088	.477	-.046	-.137	.379	-.085	.585	-.147	1.615	5.980	67.822
6	.041	.059	.345	-.066	.046	-.042	.146	.132	.790			
4	.287	.209	.188	-.105	.193	-.174	-.141	.389	.571			

KMO=.719 근사카이제곱=1314.711, df=351

본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 요인에 대한 안정성,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계수를 신뢰도 검토에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0.6 이상을 기준으로 신뢰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그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한다. 크론바하 알파계수를 사용하여 내적 일관성에 의한 측정도구 신뢰도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회복탄력성에서 0.6 이상의 수치로 나타나 신뢰 수준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회복탄력성 문항의 신뢰도는 <표 9>와 같다.

<표 9> 회복탄력성 신뢰도 검토

구분	평균	표준편차	Cronbach의 알파
생활만족도	3.55	.76	.785
공감능력	3.94	.69	.815
원인분석력	4.11	.65	.730
감사하기	4.28	.65	.800
관계성	4.16	.82	.785
커뮤니케이션능력	3.57	.76	.728
낙관성	3.91	.66	.693
충동통제력	3.32	.82	.876
감정통제력	3.40	.83	.601
회복탄력성 전체	3.83	.42	.850

4.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회수된 설문지의 문항들이 사용된 구체적인 실증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여러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여 각 문항간의 신뢰도를 측정하였고, 예측가능성, 정확성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타당도 분석으로 주 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여 문항의 요인으로 묶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차이 검증인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Scheffe 검증을 사용하였다.

넷째,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 < .05$ 를 기준으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분석 및 수준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빈도분석

대학 합창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 37명(35.2%), 여성 68명(64.8%)로 조사되었다. 전공을 살펴보면 사회과학 35명(33.3%), 공학 16명(15.2%), 자연과학 15명(14.3%), 인문과학 11명(10.5%), 기타 28명(26.7%)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설문지에 10명 이하의 전공이 선택된 의학, 약학, 보건학, 간호학, 교육학, 예체능 전공을 기타로 분류하였다. 연구 대상의 학년을 살펴보면 4학년 30명(28.6%), 2학년 29명(27.6%), 3학년 27명(25.7%)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기간의 경우 1년 이상-2년 이하 46명(43.8%), 3년 이상 21명(20.0%)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빈도의 경우 주2회 53명(50.5%), 주3회 이상 39명(37.1%), 주1회 13명(12.4%)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빈도분석

	구분	빈도	%
성별	남자	37	(35.2)
	여자	68	(64.8)
전공	인문과학	11	(10.5)
	사회과학	35	(33.3)
	자연과학	15	(14.3)
	공학	16	(15.2)
	기타(의학,약학,보건학,간호학,교육학,예체능)	28	(26.7)
학년	1학년	6	(5.7)
	2학년	29	(27.6)
	3학년	27	(25.7)
	4학년	30	(28.6)
	휴학	13	(12.4)
참여기간	6개월-1년	19	(18.1)
	1년 이상-2년 이하	46	(43.8)
	2년 이상-3년 이하	19	(18.1)
	3년 이상	21	(20.0)
참여빈도	주1회	13	(12.4)
	주2회	53	(50.5)
	주3회 이상	39	(37.1)

2) 연구 대상의 사회적 자기효능감 수준

대학 합창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표 11>에서 보는 것과 같이 권리 주장은 평균이 3.26, 표준편차가 0.82로 나타났다. 관계형성은 평균 3.31, 표

준편차는 0.96으로 나타났고, 의견표현은 평균 3.48, 표준편차 0.90으로 나타났다. 도움요청은 평균 3.63, 표준편차 0.77로 나타났고, 연구 대상의 사회적 자기효능감 전체 평균 점수는 3.42, 표준편차는 0.64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연구 대상의 사회적 자기효능감 수준은 도움요청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권리주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학 합창 동아리 활동은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의사소통 하며 본인의 문제를 인식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1> 연구대상의 사회적 자기효능감 수준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권리주장	105	1.00	5.00	3.26	0.82
관계형성	105	1.00	5.00	3.31	0.96
의견표현	105	1.00	5.00	3.48	0.90
도움요청	105	1.00	5.00	3.63	0.77
사회적 자기효능감 전체	105	1.25	4.75	3.42	0.64

3) 연구 대상의 회복탄력성 수준

<표 12>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위요인 중 연구대상의 생활만족도 평균 점수는 3.55, 표준편차 0.76으로 나타났고, 공감능력의 평균은 3.94, 표준편차는 0.69로 나타났다. 원인분석력의 평균은 4.11, 표준편차는 0.65로 나타났고, 감사하기의 평균은 4.28, 표준편차는 0.65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관계성은 평

균 4.16, 표준편차 0.82로 나타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평균 3.57, 표준편차 0.76을 나타냈다. 낙관성은 평균 3.91, 표준편차 0.66이 나타났고, 충동통제력은 3.32, 표준편차 0.82가 나타났다. 감정통제력은 평균 3.40, 표준편차 0.83으로 나타났고, 연구대상의 회복탄력성 전체 평균은 3.82, 표준편차는 0.42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연구 대상의 회복탄력성 수준은 감사하기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동통제력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음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 합창 동아리 활동을 통해 타인이 자신에게 베풀어 준 수고와 배려에 고마워하고 일상에서 감사함을 자주 느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2> 연구대상의 회복탄력성 수준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생활만족도	105	1.00	5.00	3.55	0.76
공감능력	105	2.00	5.00	3.94	0.69
원인분석력	105	2.00	5.00	4.11	0.65
감사하기	105	2.00	5.00	4.28	0.65
관계성	105	1.67	5.00	4.16	0.82
커뮤니케이션 능력	105	1.67	5.00	3.57	0.76
낙관성	105	2.67	5.00	3.91	0.66
충동통제력	105	1.50	5.00	3.32	0.82
감정통제력	105	1.00	5.00	3.40	0.83
회복탄력성 전체	105	2.71	4.79	3.83	0.42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의 차이

1) 성별에 따른 사회적 자기효능감 및 회복탄력성 차이

105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1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성별에 따른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 중 도움요청의 점수가 남자 3.55, 여자 3.67로 다른 하위변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자기효능감 전체 평균 점수는 여자가 3.47, 남자가 3.33으로 여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수준 $p < .05$ 에서 0.273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회복탄력성의 전체적인 평균 점수는 남자가 3.70, 여자가 3.90으로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높게 나타났다. 남자는 회복탄력성 하위변인 중 감사하기에서 4.13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여자도 감사하기에서 4.37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즉, 회복탄력성 평균 점수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회복탄력성 전체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수준 $p < .05$ 에서 0.022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하위변인 중 공감능력이 $p < .05$ 에서 0.041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13> 성별에 따른 사회적 자기효능감 및 회복탄력성 차이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p
권리주장	남자	37	3.07	.85	-1.803	.074
	여자	68	3.37	.79		
관계형성	남자	37	3.32	.87	.115	.908
	여자	68	3.30	1.02		
의견표현	남자	37	3.36	.81	-.979	.330
	여자	68	3.54	.94		
도움요청	남자	37	3.55	.77	-.728	.468
	여자	68	3.67	.78		
사회적 자기효능감 전체	남자	37	3.33	.59	-1.103	.273
	여자	68	3.47	.66		
생활만족도	남자	37	3.40	.64	-1.561	.122
	여자	68	3.64	.81		
공감능력	남자	37	3.76	.72	-2.072*	.041
	여자	68	4.04	.66		
원인분석력	남자	37	4.12	.71	.085	.932
	여자	68	4.11	.62		
감사하기	남자	37	4.13	.74	-1.830	.070
	여자	68	4.37	.59		
관계성	남자	37	3.95	.81	-1.867	.065
	여자	68	4.26	.81		
커뮤니케이션 능력	남자	37	3.42	.75	-1.504	.136
	여자	68	3.66	.77		
낙관성	남자	37	3.76	.71	-1.793	.076
	여자	68	4.00	.62		
충동통제력	남자	37	3.26	.75	-.574	.567
	여자	68	3.35	.86		
감정통제력	남자	37	3.43	.83	.295	.769
	여자	68	3.38	.83		
회복탄력성 전체	남자	37	3.70	.37	-2.329*	.022
	여자	68	3.90	.44		

* $p < .05$, ** $p < .01$, *** $p < .001$

2) 전공별 사회적 자기효능감 및 회복탄력성 차이

<표 1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공별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전체 평균 점수는 인문과학 전공이 3.64로 다른 전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사회과학 전공이 3.37로 낮은 점수를 나타냈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전공별 차이는 유의수준 $p < .05$ 에서 0.813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공별 회복탄력성 하위변인의 감사하기에서 기타를 제외하고 인문과학의 평균 점수가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연과학의 평균 점수가 4.02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감사하기의 유의수준은 $p < .01$ 에서 0.004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1$). 하위변인 감정통제력의 경우에는 기타를 제외하고 사회과학의 평균 점수가 3.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학은 3.03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감정통제력의 유의수준은 $p < .05$ 에서 0.030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 < .05$). 즉, 전공이 인문과학인 경우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등보다 높은 감사하기 점수를 보였고, 사회과학인 경우 공학, 인문과학, 자연과학 등보다 높은 감정통제력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회복탄력성 전체 평균 점수는 인문과학이 3.99로 높게 나타났고 공학이 3.78로 낮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p = 0.645$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 .05$).

<표 14> 전공별 사회적 자기효능감 및 회복탄력성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권리주장	인문과학	11	3.64	.78	.795	.531	
	사회과학	35	3.21	.72			
	자연과학	15	3.33	1.01			
	공학	16	3.09	.95			
	기타(의학,교육학,예체능 등)	28	3.23	.79			
	합계	105	3.26	.82			

관계형성	인문과학	11	3.50	1.24	.611	.655
	사회과학	35	3.14	.97		
	자연과학	15	3.23	.86		
	공학	16	3.53	.92		
	기타(의학,교육학,예 체능 등)	28	3.36	.93		
	합계	105	3.31	.96		
의견표현	인문과학	11	3.55	1.29	.529	.715
	사회과학	35	3.46	.79		
	자연과학	15	3.77	.73		
	공학	16	3.34	.87		
	기타(의학,교육학,예 체능 등)	28	3.41	.96		
	합계	105	3.48	.90		
도움요청	인문과학	11	3.86	.98	.569	.686
	사회과학	35	3.69	.68		
	자연과학	15	3.47	.83		
	공학	16	3.50	.86		
	기타(의학,교육학,예 체능 등)	28	3.63	.74		
	합계	105	3.63	.77		
사회적 자기효능감 전체	인문과학	11	3.64	.82	.393	.813
	사회과학	35	3.38	.60		
	자연과학	15	3.45	.54		
	공학	16	3.37	.58		
	기타(의학,교육학,예 체능 등)	28	3.41	.70		
	합계	105	3.42	.64		
생활만족도	인문과학	11	3.88	.72	.914	.459
	사회과학	35	3.40	.56		
	자연과학	15	3.64	.73		
	공학	16	3.54	.82		
	기타(의학,교육학,예 체능 등)	28	3.57	.95		
	합계	105	3.55	.76		
공감능력	인문과학	11	4.21	.54	.571	.684
	사회과학	35	3.87	.69		
	자연과학	15	3.87	.68		
	공학	16	3.96	.83		
	기타(의학,교육학,예 체능 등)	28	3.96	.67		
	합계	105	3.94	.69		
원인분석력	인문과학	11	4.45	.65	1.925	.112

	사회과학	35	4.14	.56			
	자연과학	15	4.23	.68			
	공학	16	4.13	.62			
	기타(의학,교육학,예 체능 등)	28	3.88	.70			
	합계	105	4.11	.65			
감사하기	인문과학a	11	4.88	.17	4.135*	.004	a>e>b> c,d
	사회과학b	35	4.18	.59			
	자연과학c	15	4.02	.68			
	공학d	16	4.10	.71			
	기타(의학,교육학,예 체능 등)e	28	4.42	.66			
	합계	105	4.28	.65			
관계성	인문과학	11	4.00	.97	.353	.842	
	사회과학	35	4.10	.76			
	자연과학	15	4.22	.95			
	공학	16	4.10	.82			
	기타(의학,교육학,예 체능 등)	28	4.29	.80			
	합계	105	4.16	.82			
커뮤니케이션 능력	인문과학	11	3.85	.82	.868	.486	
	사회과학	35	3.45	.73			
	자연과학	15	3.47	.66			
	공학	16	3.54	.82			
	기타(의학,교육학,예 체능 등)	28	3.70	.81			
	합계	105	3.57	.76			
낙관성	인문과학	11	3.94	.84	.971	.427	
	사회과학	35	3.78	.55			
	자연과학	15	3.82	.69			
	공학	16	3.94	.67			
	기타(의학,교육학,예 체능 등)	28	4.10	.68			
	합계	105	3.91	.66			
충동통제력	인문과학	11	3.05	.76	.492	.742	
	사회과학	35	3.41	.71			
	자연과학	15	3.30	.75			
	공학	16	3.41	1.00			
	기타(의학,교육학,예 체능 등)	28	3.27	.91			
	합계	105	3.32	.82			
감정통제력	인문과학a	11	3.27	1.06	2.797*	.030	b>c>a,e >d
	사회과학b	35	3.73	.71			

	자연과학c	15	3.47	.67		
	공학d	16	3.03	.74		
	기타(의학,교육학,예 체능 등)e	28	3.21	.89		
	합계	105	3.40	.83		
회복탄력성 전체	인문과학	11	3.99	.40	.626	.645
	사회과학	35	3.79	.39		
	자연과학	15	3.80	.47		
	공학	16	3.78	.41		
	기타(의학,교육학,예 체능 등)	28	3.87	.46		
	합계	105	3.83	.42		

* $p < .05$, ** $p < .01$, *** $p < .001$

3) 학년별 사회적 자기효능감 및 회복탄력성 차이

<표 15>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학년별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 중 관계형성의 평균 점수는 4학년의 경우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적은 휴학은 상대적으로 낮은 관계형성 점수를 보였다. 관계형성의 학년별 차이는 유의수준 $p < .05$ 에서 0.014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 < .05$). 사회적 자기효능감 전체의 경우 4학년의 점수가 3.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휴학이 3.27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평균 점수는 3.42이고, 유의수준은 $p < .05$ 에서 $p = 0.163$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학년별 회복탄력성의 하위변인 중 감사하기의 평균 점수는 4.28로 다른 하위변인에 비하여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감사하기의 3학년 평균 점수가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번 년도에 코로나19의 여파로 활동을 활발히 하지 못한 1학년의 평균 점수가 4.00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학년별 회복탄력성 전체의 평균 점수는 4학년이 3.9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2학년은 3.7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

다. 회복탄력성 전체의 유의수준은 $p < .05$ 에서 0.538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5> 학년별 사회적 자기효능감 및 회복탄력성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권리주장	1학년	6	3.42	.58	.401	.807	
	2학년	29	3.16	.92			
	3학년	27	3.30	.86			
	4학년	30	3.37	.78			
	휴학	13	3.12	.79			
	합계	105	3.26	.82			
관계형성	1학년a	6	3.67	1.03	3.274*	.014	ad>c>b >e
	2학년b	29	2.98	1.08			
	3학년c	27	3.33	.88			
	4학년d	30	3.72	.84			
	휴학e	13	2.88	.77			
	합계	105	3.31	.96			
의견표현	1학년	6	3.50	.89	1.084	.369	
	2학년	29	3.26	.90			
	3학년	27	3.48	.99			
	4학년	30	3.73	.82			
	휴학	13	3.38	.85			
	합계	105	3.48	.90			
도움요청	1학년	6	3.67	.52	.261	.903	
	2학년	29	3.60	.83			
	3학년	27	3.52	.90			
	4학년	30	3.72	.65			
	휴학	13	3.69	.78			
	합계	105	3.63	.77			
사회적 자기효능감 전체	1학년	6	3.56	.65	1.669	.163	
	2학년	29	3.25	.72			
	3학년	27	3.41	.62			
	4학년	30	3.63	.55			
	휴학	13	3.27	.59			
	합계	105	3.42	.64			
생활만족도	1학년	6	3.61	.53	.487	.745	
	2학년	29	3.41	.93			
	3학년	27	3.53	.77			
	4학년	30	3.69	.69			
	휴학	13	3.56	.60			

	합계	105	3.55	.76		
공감능력	1학년	6	4.00	.21	.787	.536
	2학년	29	4.08	.71		
	3학년	27	3.99	.77		
	4학년	30	3.86	.76		
	휴학	13	3.72	.40		
	합계	105	3.94	.69		
원인분석력	1학년	6	3.83	.52	1.817	.132
	2학년	29	4.12	.65		
	3학년	27	4.30	.75		
	4학년	30	4.15	.59		
	휴학	13	3.77	.48		
	합계	105	4.11	.65		
감사하기	1학년	6	4.00	.82	.681	.607
	2학년	29	4.30	.66		
	3학년	27	4.42	.51		
	4학년	30	4.24	.66		
	휴학	13	4.18	.82		
	합계	105	4.28	.65		
관계성	1학년	6	3.78	1.15	1.853	.125
	2학년	29	3.89	.96		
	3학년	27	4.22	.72		
	4학년	30	4.31	.68		
	휴학	13	4.44	.71		
	합계	105	4.16	.82		
커뮤니케이션 능력	1학년	6	3.56	.58	.689	.601
	2학년	29	3.49	.87		
	3학년	27	3.52	.82		
	4학년	30	3.77	.78		
	휴학	13	3.44	.34		
	합계	105	3.57	.76		
낙관성	1학년	6	4.17	.28	1.955	.107
	2학년	29	3.69	.60		
	3학년	27	3.90	.79		
	4학년	30	4.12	.56		
	휴학	13	3.82	.69		
	합계	105	3.91	.66		
충동통제력	1학년	6	3.50	.45	.404	.805
	2학년	29	3.19	.87		
	3학년	27	3.31	.83		
	4학년	30	3.43	.85		
	휴학	13	3.27	.78		
	합계	105	3.35	.76		

	합계	105	3.32	.82		
감정통제력	1학년	6	3.33	.75	.184	.946
	2학년	29	3.31	.99		
	3학년	27	3.39	.87		
	4학년	30	3.48	.75		
	휴학	13	3.46	.63		
	합계	105	3.40	.83		
회복탄력성 전체	1학년	6	3.78	.20	.784	.538
	2학년	29	3.74	.40		
	3학년	27	3.86	.48		
	4학년	30	3.92	.42		
	휴학	13	3.77	.42		
	합계	105	3.83	.42		

* $p < .05$, ** $p < .01$, *** $p < .001$

4) 참여 기간별 사회적 자기효능감 및 회복탄력성 차이

<표 16>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합창 동아리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의 참여 기간별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경우 하위변인 도움요청의 평균 점수가 3.63으로 다른 하위변인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2년 이상에서 3년 이하의 평균 점수가 3.66으로, 2년 미만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수준 $p < .05$ 에서 0.102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회복탄력성의 하위변인 감사하기의 경우 4.28로 다른 하위변인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고, 충동통제력이 3.32로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하위변인 중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인 감사하기는 2년 이상에서 3년 이하의 평균 점수가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장 낮은 평균을 보인 충동통제력은 2년 이상에서 3년 이하의 평균이 3.2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회복탄력성 전체는 2년 이상에서 3년 이하의 평균 점수가 3.96으로 2년 이하보다 높은 회복탄력성을 보였지만 유의수준 $p < .05$ 에서 0.454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16> 참여 기간별 사회적 자기효능감 및 회복탄력성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권리주장	6개월~1년	19	3.08	.96	.825	.483	
	1년 이상~2년 이하	46	3.22	.87			
	2년 이상~3년 이하	19	3.47	.75			
	3년 이상	21	3.33	.64			
	합계	105	3.26	.82			
관계형성	6개월~1년	19	3.21	.95	2.461	.067	
	1년 이상~2년 이하	46	3.10	.99			
	2년 이상~3년 이하	19	3.76	.67			
	3년 이상	21	3.45	1.04			
	합계	105	3.31	.96			
의견표현	6개월~1년	19	3.05	.86	2.365	.075	
	1년 이상~2년 이하	46	3.47	.94			
	2년 이상~3년 이하	19	3.66	.76			
	3년 이상	21	3.74	.85			
	합계	105	3.48	.90			
도움요청	6개월~1년	19	3.53	.75	.299	.826	
	1년 이상~2년 이하	46	3.60	.79			
	2년 이상~3년 이하	19	3.74	.67			
	3년 이상	21	3.69	.86			
	합계	105	3.63	.77			
사회적 자기효능감 전체	6개월~1년	19	3.22	.67	2.125	.102	
	1년 이상~2년 이하	46	3.35	.68			
	2년 이상~3년 이하	19	3.66	.48			
	3년 이상	21	3.55	.58			
	합계	105	3.42	.64			
생활만족도	6개월~1년	19	3.44	.94	.497	.685	
	1년 이상~2년 이하	46	3.51	.72			
	2년 이상~3년 이하	19	3.58	.73			
	3년 이상	21	3.71	.74			
	합계	105	3.55	.76			
공감능력	6개월~1년	19	4.05	.65	.889	.450	
	1년 이상~2년 이하	46	3.94	.67			
	2년 이상~3년 이하	19	4.05	.73			
	3년 이상	21	3.75	.73			
	합계	105	3.94	.69			
원인분석력	6개월~1년	19	3.95	.66	.876	.456	
	1년 이상~2년 이하	46	4.18	.69			
	2년 이상~3년 이하	19	4.21	.56			
	3년 이상	21	4.02	.60			
	합계	105	4.11	.65			

감사하기	6개월~1년	19	4.37	.64	.785	.505
	1년 이상~2년 이하	46	4.24	.70		
	2년 이상~3년 이하	19	4.44	.63		
	3년 이상	21	4.16	.59		
	합계	105	4.28	.65		
관계성	6개월~1년	19	3.74	1.08	2.647	.053
	1년 이상~2년 이하	46	4.14	.76		
	2년 이상~3년 이하	19	4.37	.74		
	3년 이상	21	4.37	.65		
	합계	105	4.16	.82		
커뮤니케이션 능력	6개월~1년	19	3.47	.76	2.477	.066
	1년 이상~2년 이하	46	3.44	.79		
	2년 이상~3년 이하	19	3.98	.64		
	3년 이상	21	3.59	.74		
	합계	105	3.57	.76		
낙관성	6개월~1년	19	3.96	.71	.966	.412
	1년 이상~2년 이하	46	3.79	.68		
	2년 이상~3년 이하	19	4.04	.65		
	3년 이상	21	4.02	.57		
	합계	105	3.91	.66		
충동통제력	6개월~1년	19	3.34	.93	.610	.610
	1년 이상~2년 이하	46	3.25	.80		
	2년 이상~3년 이하	19	3.24	.87		
	3년 이상	21	3.52	.72		
	합계	105	3.32	.82		
감정통제력	6개월~1년	19	3.34	.88	.106	.956
	1년 이상~2년 이하	46	3.45	.84		
	2년 이상~3년 이하	19	3.34	.91		
	3년 이상	21	3.40	.70		
	합계	105	3.40	.83		
회복탄력성 전체	6개월~1년	19	3.77	.39	.881	.454
	1년 이상~2년 이하	46	3.79	.45		
	2년 이상~3년 이하	19	3.96	.36		
	3년 이상	21	3.86	.44		
	합계	105	3.83	.42		

* $p < .05$, ** $p < .01$, *** $p < .001$

5) 참여 빈도별 사회적 자기효능감 및 회복탄력성 차이

<표 17>에서 보는 것과 같이 동아리 참여 빈도별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경우 하위변인 도움요청은 3.63으로 다른 하위변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의견표현이 3.48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하위변인 도움요청에서 주2회가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1회가 3.58, 그 다음 주3회 이상이 3.47을 나타냈다. 의견표현에서는 주2회가 3.60으로 높은 점수를, 주3회 이상이 3.44, 그 다음 주1회가 3.12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사회적 자기효능감 전체의 경우 주2회의 평균 점수가 3.48로 주1회의 평균 점수인 3.28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유의수준 $p < .05$ 에서 0.570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회복탄력성 하위변인 9개 중 4개를 제외한 생활만족도, 공감능력, 원인분석력, 관계성, 충동통제력에서 주3회 이상의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위변인 생활만족도에서 주3회 이상의 평균 점수가 3.62, 공감능력에서 주3회 이상의 평균 점수는 4.05, 원인분석력에서 주3회 이상의 평균 점수는 4.24, 관계성에서 주3회 이상의 평균 점수는 4.20, 충동통제력에서 주3회 이상의 평균 점수는 3.29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 전체의 경우 주3회 이상의 평균 점수가 3.87로 주1회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고 전체 유의수준이 $p < .05$ 에서 0.751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7> 참여 빈도별 사회적 자기효능감 및 회복탄력성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권리주장	주1회	13	3.12	.85	.240	.787	
	주2회	53	3.29	.74			
	주3회 이상	39	3.27	.94			
	합계	105	3.26	.82			

관계형성	주1회	13	3.31	.85	.201	.818
	주2회	53	3.25	1.09		
	주3회 이상	39	3.38	.83		
	합계	105	3.31	.96		
의견표현	주1회	13	3.12	.87	1.650	.197
	주2회	53	3.60	.95		
	주3회 이상	39	3.44	.81		
	합계	105	3.48	.90		
도움요청	주1회	13	3.58	.49	1.529	.222
	주2회	53	3.75	.75		
	주3회 이상	39	3.47	.86		
	합계	105	3.63	.77		
사회적 자기효능감 전체	주1회	13	3.28	.54	.566	.570
	주2회	53	3.48	.67		
	주3회 이상	39	3.39	.62		
	합계	105	3.42	.64		
생활만족도	주1회	13	3.46	.82	.249	.780
	주2회	53	3.53	.75		
	주3회 이상	39	3.62	.77		
	합계	105	3.55	.76		
공감능력	주1회	13	3.74	.82	1.080	.343
	주2회	53	3.91	.63		
	주3회 이상	39	4.05	.72		
	합계	105	3.94	.69		
원인분석력	주1회	13	4.08	.45	1.272	.285
	주2회	53	4.03	.67		
	주3회 이상	39	4.24	.67		
	합계	105	4.11	.65		
감사하기	주1회	13	4.38	.68	.210	.811
	주2회	53	4.28	.59		
	주3회 이상	39	4.25	.74		
	합계	105	4.28	.65		
관계성	주1회	13	4.03	.69	.208	.813
	주2회	53	4.16	.85		
	주3회 이상	39	4.20	.84		
	합계	105	4.16	.82		
커뮤니케이 션 능력	주1회	13	3.41	.91	.404	.669
	주2회	53	3.62	.75		
	주3회 이상	39	3.56	.74		
	합계	105	3.57	.76		

낙관성	주1회	13	3.97	.71	.079	.924
	주2회	53	3.89	.64		
	주3회 이상	39	3.91	.67		
	합계	105	3.91	.66		
충동통제력	주1회	13	3.23	.67	.152	.859
	주2회	53	3.36	.88		
	주3회 이상	39	3.29	.79		
	합계	105	3.32	.82		
감정통제력	주1회	13	3.50	.76	.611	.545
	주2회	53	3.31	.84		
	주3회 이상	39	3.49	.84		
	합계	105	3.40	.83		
회복탄력성 전체	주1회	13	3.78	.39	.287	.751
	주2회	53	3.82	.38		
	주3회 이상	39	3.87	.49		
	합계	105	3.83	.42		

* $p < .05$, ** $p < .01$, *** $p < .001$

3. 연구 대상의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 상관관계

대학 합창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 관련변인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8>과 같다.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r = .622$ 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p < .001$). 사회적 자기효능감 하위변인 중 권리주장이 $r = .405$, 관계형성이 $r = .550$, 의견표현이 $r = .450$, 도움요청이 $r = .404$ 로 회복탄력성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p < .001$).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의 경우에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며, 특히, 관계형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도움요청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18>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의 상관관계

	권리주 장	관계형 성	의견표 현	도움요 청	자기효 능감 전체	생활 만족도	공감능 력	원인 분석력	감사하 기	관계성	커뮤니 케이션 능력	낙관성	충동 통제력	감정 통제력	회복탄 력성전 체	
권리주장	1	.239*														
관계형성	.239*	1														
의견표현	.290***	.611***	1													
도움요청	.381***	.417***	.344***	1												
자기효능감 전체	.633***	.799***	.783***	.707***	1											
생활만족도	.250*	.488***	.347***	.374***	.503***	1										
공감능력	.250*	.338***	.304***	.128	.356***	.262***	1									
원인 분석력	.263***	.131	.182	.153	.246*	.362***	.295***	1								
감사하기	.174	.142	.075	.162	.186	.334***	.176	.150	1							
관계성	.256***	.333***	.226*	.274***	.373***	.335***	.106	.129	.381***	1						
커뮤니케이 션 능력	.247*	.576***	.505***	.256***	.555***	.329***	.491***	.005	.151	.198*	1					
낙관성	.233*	.314***	.177	.297***	.348***	.458**	.246*	.276***	.290***	.303***	.128	1				
충동통제력	.100	.166	.205*	.144	.211*	.209*	.260***	.239*	.193*	.259***	.094	.345** *	1			
감정통제력	.310***	.172	.215*	.223*	.309***	.254***	.226*	.430***	-.027	.165	.056	.255** *	.293***	1		
회복탄력성 전체	.405***	.550***	.450***	.404***	.622***	.710***	.598***	.493***	.534***	.603***	.528***	.639** *	.528***	.466** *	1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대학 합창 동아리 활동이 대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의 수준 및 차이를 알아보고 그들의 관계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7개 대학의 합창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선정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의 사회적 자기효능감 수준을 알아본 결과, 하위요인 중 도움요청의 평균 점수(3.63)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권리주장의 평균 점수(3.26)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합창 활동을 통해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의사소통하며 본인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고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연구 대상의 회복탄력성 수준을 알아본 결과,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감사하기(4.28)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동통제력(3.32)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로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합창 활동을 통해 타인이 자신에게 베풀어 준 수고와 배려에 고마워하고 일상에서 감사함을 자주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감정들은 부정적인 정서를 낮춰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성별에 따른 회복탄력성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남자가 3.70, 여자가 3.90으로 여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통계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회복탄력성의 유의수준은 $p < .05$ 에서 0.022를 가지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합창 동아리 활동을 하는 단원 중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회복탄력성을 가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전공에 따른 회복탄력성에서는 하위요인 중 감사하기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인문과학의 평균 점수가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회과학에서 4.18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또 다른 하위요인인 감정통제력에서도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사회과학이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연과학이 3.47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감사하기와 감정통제력이 유의수준 $p < .01$ 에서 0.004와 0.030이 나오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과학을 전공한 경우 공학, 인문과학, 자연과학 및 기타 전공보다 높은 감정통제력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학년에 따른 사회적 자기효능감에서는 하위요인 중 관계형성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4학년의 평균 점수가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휴학은 상대적으로 낮은 3.27의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관계형성이 유의수준 $p < .05$ 에서 0.014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횟수가 적은 휴학생보다 등교 횟수가 잦고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횟수가 많은 학생일수록 더 높은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섯째,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의 상관관계는 서로 관련이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는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이 서로 정적인 상관관계의 결과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자기효능감 하위변인 중 권리주장(0.405), 관계형성(0.550), 의견표현(0.450), 도움요청(0.404)로 회복탄력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중 7개의 대학 합창 동아리가 있는 105명의 대학생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다. 서울에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하여 63개의 대학이 있는데 그 중 23개의 대학교가 합창 동아리를 가진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7곳의 동아리만이 설문에

응해주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과 인원을 확대하여 연구한다면 보다 정확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대학 합창 동아리 활동을 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의 수준과 차이 및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합창 동아리 활동을 하는 대학생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 연구함으로써 두 집단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비교 연구를 통하여 합창 활동이 대학생에게 교육적 영향을 미친다거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연구는 인문과학 11명, 사회과학 35명, 자연과학 15명, 공학 16명, 기타(의학, 약학, 보건학, 간호학, 교육학, 예체능) 28명으로 표본이 불균형을 이루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합창 동아리 활동을 하는 대학生的 전공별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공별 인원수를 비교적 고르게 선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生的 합창 동아리 활동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교 음악 동아리의 전반적인 현황과 합창 동아리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합창이 대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와 새로운 방법들이 논의되어 대학 합창 동아리가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순미, 조대현(2009). “고든의 음악학습이론에 근거한 표준보육과정 내 음악활동의 내용분석과 재구성”, **열린유아교육연구**, 14(4), 1-22.
- 강한아, 김아영(2013). “대학생용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7(2), 263-283.
- 권은미, 신민섭, 김은정(2009). “내현적 자기에가 사회공포증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일반**, 28(3), 627-642.
- 김경호(2008). “‘의견표현’과 ‘사실적시’ 이분법에 따른 대법원의 표현의 자유 보호 법리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8(1), 39-80.
- 김경훈(2014). 도시공원 여가 만족이 직장인의 직무 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대업(2008).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 경기 : 학현사.
- 김덕진, 양명환(2003).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유형과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간의 관계”, **한국체육교육학회지**, 7(4), 135-150.
- 김명원, 공윤정(2020). “초등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방어 및 방관행동의 관계에서 교사감독의 조절효과”, **초등상담연구**, 19(2), 165-180.
- 김주이(2017). 폐쇄성 무호흡 환자를 위한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 Bandura의 자기효능이론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주환(2011). **회복탄력성**. 위즈덤하우스
- 김준경(2015). “한국의 문화: 대학 캠퍼스 구성원의 합창음악 활동을 통한

- 인성적 교류 경험”, **한국사상문화학회**, 76, 345-369.
- 김지자, 조주연, 김재영, 심성옥(1999). “동아리 활동을 통해 본 교육 대학 문화 연구”, **학생지도연구 서울교육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5, 131-164.
- 민경훈, 김신영, 김용희, 방금주, 승윤희, 양종모, 이연경, 임미경, 장기범, 조순이, 주대창, 현경실(2019). **음악교육학 총론(제3판)**. 서울 : 학지사
- 박은혁, 이용택(2013). “대학생의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과 자아탄력성이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4(4), 5-30.
- 박현미(2013).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우울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방상옥, 임은미(2020). “교사의 문화신념과 교사효능감 군집에 따른 심리적 소진의 차이”, **교사교육연구**, 59(2), 259-272.
- 배병렬(2011). **AMOS 19 구조 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 청람.
-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 “회복탄력성 검사 지수의 개발 및 타당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4), 105-131.
- 알베르트 반두라(2004).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의 자기효능감**. 서울 : 학지사.
- 이보배(2017). 대학생의 회복탄력성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실패공포의 매개효과, **경희대학교 대학원**.
- 이소영(2018). 위기 청소년에게 회복탄력성이 갖는 의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연주(2019). 대학 오케스트라 활동이 대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영구(2012).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 리더십 생활 기술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스카우트 단체 활동을 중심으로, **명지대**

-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미(2009). “합창교육의 사회학적 연구”, **예술교육연구**, 7(2), 123-135.
- 이인영(2015). 음악 동아리 활동이 중학생의 음악 흥미도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정애(2012).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과적응 간의 관계에서 결과기대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3(5), 2239-2344.
- 이희주(2008). “교사의 목표 지향과 자기효능감, 도움요청 행동과의 관계”, **한국아동교육학회**, 17(1), 215-224.
- 임선미(2016). 음악 동아리 활동이 중학생의 음악 흥미도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근주, 심소연(2013). “대학 음악 전공자들의 자기효능감과 연주자신감의 상관관계”, **음악교육연구**, 42(4), 101-120.
- 정우향(2019). **회복탄력성·소통·신자유주의 소통의 시선**, 도서출판 대장간.
- 정현태(2008). 대학 동아리 활동에 따른 여가만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 조성희(2006).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과 사회적지지, 학업적응도 및 대학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 조은미, 박해임, 천성문(2018). “대학 신입생의 전공 선택 동기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42(1), 175-193.
- 지성호, 강영순(2015). “지속경력학습과 조직경력성장의 관계에서 경력적응력 및 직무효능감의 매개효과”, **인적자원관리연구**, 22(5), 21-47.
- 최서규(2015). 노인의 회복탄력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하성일(2011). 음악 동아리 활동을 통한 농어촌 학생들의 자신감 키우기에

관한 반성적 실천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홍은숙(2006). “탄력성의 개념적 이해와 교육적 방안”, **특수교육학연구**,
41(2), 45-67.

ABSTRACT

The Effect of Choral Activities in University Club on Self-Efficiency and Resilience

Lee, Ye na
Music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evel and difference of social self-efficacy and resilience of university students who participate in university choral club activities,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university choral clubs on the students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elf-efficacy and resilience.

To achieve this goal, a survey was conducted by selecting 105 students from 7 universities in Seoul that are participating in choral club activiti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validity and reliability analysis, T-test, one way ANOVA, Scheffe test, and correlation analysis using the SPSSWIN 24.0 program.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social self-efficacy and resilience were highest in 'request for help' of social self-efficacy(3.63) and 'appreciation' of resilience(4.28).

Second, in terms of resilience according to sex, women(3.90) had a relatively higher average score than men(3.70), and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p=0.022$, $p<.05$).

Third, in terms of resilience according to the major, the average score of the humanities(4.88) was the highest in the sub-factor 'appreciating', and the social science(4.18) was the second-highest. Statistically, among the sub-factors of resilience, 'appreciation' and 'emotional control' had a significant difference($p=0.004$, 0.030 , $p<.01$).

Fourth, in terms of social self-efficacy according to year, the average score of seniors(3.72) was the highest in sub-factor relationship formation, and leave of absence(3.27) was relatively low. Statistically,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ub-factor 'relationship formation'($p=0.014$, $p<.05$).

Fifth,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social self-efficacy and resilience. And among the sub-variables of social self-efficacy, 'claim of rights'(0.405), 'relationship formation'(0.550), 'expression of opinion'(0.450), and 'request for help'(0.404)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resilience.

부 록

안녕하십니까? 바쁜 시간 내어 협조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음악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이예나입니다. 저는 대학 합창 동아리에 참여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합창활동이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석사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를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본 설문지는 익명으로 이루어지고, 여러분들께서 작성해주시는 결과에 맞거나 틀린 답은 없습니다. 또한 학술적인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각 문항을 꼼꼼히 읽으신 후 솔직하고 정성껏 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연구자 : 이 예나

E-mail : 93yena@hanmail.net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전공은?

- ① 인문과학 ② 사회과학(사회/법학/경영) ③ 자연과학 ④ 공학
⑤ 교육학 ⑥ 예체능 ⑦ 의학, 약학, 보건학, 간호학
⑧ 기타: _____

3) 귀하의 학년은?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휴학생

4) 귀하의 합창단 동아리 참여기간은?

- ① 6개월-1년 ② 1년-2년 ③ 2년-3년 ④ 3년 이상

5) 귀하의 합창단 동아리 참여 빈도는? (일주일 기준, 코로나 이전)

- ① 주1회 ② 주2회 ③ 주3회 ④ 주4회 이상

5) 귀하의 합창단 동아리 참여 빈도는? (일주일 기준, 코로나 이후)

- ① 주1회 ② 주2회 ③ 주3회 ④ 주4회 이상 ⑤ 활동하지 않음

※ 다음은 귀하의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문항을 읽고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위 영역	문항내용	문항 번호
관계형성 및 유지	쉽게 친해지기 어려워 보이는 사람이어도 친해지고 싶다면 먼저 다가갈 수 있다.	1
	나는 누구와도 쉽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	2
의견 표현	나는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도 나의 의견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3
	나만의 대화기술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4
권리 주장	나를 배려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배려해달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다.	5
	모임에서 사람들이 부당한 결정을 내릴 때, 나의 생각을 당당히 밝힐 수 있다.	6
도움 요청	나만의 대화기술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7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렵다.	8

※ 다음은 귀하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문항을 읽고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위 영역	문항내용	문항 번호
원인 분석력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가능한 해결방안에 대해 먼저 생각한 후에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1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2
	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문제의 원인을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	3
감정 통제력	나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4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내 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알아챈다.	5
	이슈가 되는 문제를 가족이나 친구들과 토론할 때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다.	6
충동 통제력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나는 어떤 유혹이나 방해도 이겨낼 수 있다.	7
	아무리 어렵고 당황스러운 일이 닥쳐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잘 안다.	8
	일이 생각대로 잘 안 풀리면 쉽게 포기하는 편이다.	9
감사하기	세상을 둘러보면 내가 감사해야 할 것들이 별로 없다.	10
	내가 고맙게 여기는 것들을 모두 고른다면, 아주 긴 목록이 될 것이다.	11
	나는 감사해야 할 것이 별로 없다.	12
생활 만족도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조건들은 만족스럽다.	13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14
	나는 내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갖고 있다.	15

낙관성	열심히 일하면 언제나 보답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16
	맞든 아니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나는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17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라고 확신한다.	18
관계성	나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를 싫어하게 된다.	19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거의 없다.	20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친구가 별로 없는 편이다.	21
커뮤니케이션능력	나는 재치 있는 농담을 잘한다.	22
	나는 분위기나 상대에 따라 대화를 잘 이끌어갈 수 있다.	23
	나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적절한 문구나 단어를 잘 찾아낸다.	24
공감능력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있다.	25
	슬퍼하거나, 당황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을 보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다.	26
	동료가 화를 낼 경우 나는 그 이유를 꽤 잘 아는 편이다.	27